



PREVOST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

FERDINANDO FREGA · GILLETTENARRATIVE · GILLETTEVATICANO · 13/17

Prevost 교황 성하께,

제 이름은 **Ferdinando Frega**입니다.

저는 존경을 담아 성하께 글을 올립니다. 성하의 시간이 수백만 사람들의 영적 돌봄에 바쳐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성하께 닿는 모든 말이 성하 앞에 이르기까지 여러 손을 거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하께서는 교황이시지만, 그 이전에 프랑스식 성을 가진 미국인이십니다. 제가 말을 거는 상대는 성하의 직무 이전에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직책 자체보다 먼저 존재했던 책임과 기억과 역사를 지닌 그 사람입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인간의 행동과 기억과 존엄을 탐구하는 서사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 여정에서 저는 결코 무례하지 않고, 결코 신성모독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지극한 경외에 이끌린 예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았던 것, 이야기되지 않았던 것, 신학의 차원에 속하기 이전에 인간의 차원에 속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서사입니다.

제 작업에서 예수는 역사 속을, 그리고 사람들 속을 걸어가는 한 남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하께 어찌면 미소를 짓게 할지도 모를 서사적 세부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작업에서 그는 **Gillette**에서 일했고,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Gillette**는 성하와 꼭 같이 프랑스식 성을 가진 미국인이었습니다.

Gillettenarrative.com의 **Eternity** 섹션에서 제가 영적 차원에 바친 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모든 인간의 삶에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뜻하는 **Mental Health** 섹션에서는, 많은 이가 짐작하지만 정말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연약함과 회복력,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에 관한 자전적 성찰입니다.

글쓰기를 향한 제 열정에는 하나의 행위가 따릅니다. 저는 제 작업을 세계의 모든 독자에게 거저 줍니다. 그러나 누군가 저를 만나고자 할 때는, 어떤 구분도 없이, 양면에 서명된 1달러를 청합니다. 그것은 값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모든 인간의 만남에는 가치가 있고 어떤 말도 자각 없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성하께 아무것도 청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성찰에 진심 어린 보탬으로 제 작업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제 글은 영어와 스물한 개의 다른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탈리아어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언어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제 것인 언어이지만, 저는 그 언어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1970년대에 저를 8년 동안 받아 준 레조칼라브리아의 기숙학교에서, 성 빈첸시오 수도회의 수녀님들은 제가 이탈리아어에서 4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교회와 그 교육자들이 저에게 가르친 것을 언제나 존중해 왔습니다.

이 몇 줄에 시간을 내어 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이것은 공개 서한이며 제 독자들을 위해 공개될 것입니다. 저는 투명함이 인간 본성의 가장 높은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가 안에 지니고 있고 삶이 우리에게 넘어서라고 원하는 편견들만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성하 앞에 놓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눕니다. 진실은 결코 빛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Ferdinando